

변화의 10년, 도약의 1년... 다시 시민과 함께



정헌율 익산시장이 26일 시청에서 민선8기 3주년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 “마무리 아닌 새로운 출발점”

정헌율 익산시장이 26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열린 브리핑에서 “남은 임기를 마지막이 아닌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단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정헌율 시장은 민선6기부터 8기까지 지난 10년간 지내온 발자취를 복기하며,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브리핑은 3선 연임 제한으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정헌율 시장에게 사실상 마지막 공식 중간 점검의 자리가 됐다.

하지만 정 시장은 “마무리가 아닌, 더 큰 익산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임을 선언하며 마지막 1년을 미래의 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시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뜨거운 새 마음으로 달릴 1년

이날 정 시장은 혁신과 안정의 조화를 통해 익산의 미래를 든든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전략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익산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국가사업들은 단순한 구상을 넘어 현실의 기반 위에 초석을 놓는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한눈에 보는 ‘국립식품박물관’은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다. 식품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종합문화 공간 건립으로 익산은 식품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안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관련법 개정과 타당성 확보 용역을 통해 국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왕궁 자연환경복원 프로젝트’와 산재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북권역의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은 대공법 개정으로 정책적 물꼬를 텄다.

그간 추진해 온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과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역점 사업도 정 시장 특유의 특성과 추진력을 기반으로 멈춤 없이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주 여건 혁신... 살고 싶은, 살맛 나는 익산

브리핑에서는 그간의 성과도 상세히 다뤘다. 익산은 ‘지나가는 도시’에서 ‘머무르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주택 정책은 정 시장이 그려온 그림의 핵심이다.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며 시민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켰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도시 중심부 주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 왔다. 변화가 일대마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했고, 익산역 인근으로는 1,100여 면 상당의 주차 구역을 확보했다. 스마트폰



익산시청 신청사 조감도

혁신·안정 조화... 활기찬 도시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 구축

앱을 이용해 대상 주차장의 위치와 요금, 잔여 면수, 주차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요금 결제까지 하는 스마트 주차장 사업도 도입했다.

특히 열차표 소지 시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익산역 공영주차장에서는 만차 시 대리주차 서비스를 제공해 다급한 일정의 열차 탑승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라도 눈에 띈다.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성공은 코로나19로 침몰하던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큰 몫을 했다. 전국의 수많은 지역화폐 중에서도 가장 빨리 안착한 성공 사례로 평가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례 보증 지원 등 내실 있는 서민 금융 지원책을 통해 일자리, 복지, 소비, 금융까지 아우르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날마다 푸르른, 활기찬 익산

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 환경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조경사업을 넘어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온도 조절, 녹지 네트워크 확충 등 실질적 환경 복원 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힘입어 익산은 이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도전하고 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민간특례공원’은 익

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녹색 정책이다. 마동·모인·소라·수도산공원 등이 새롭게 조성돼 도심 한 가운데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장하고 생활 속 휴식 공간을 확보하며 시민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왕궁 축산단지의 현업 축사 매입은 장기간 문제로 지적돼 온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환경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왕궁은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환경 복원 사업으로 새로워지게 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보는 관광’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기억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활영 명소로 알려진 교도소세트장부터, 다이노키즈월드 중심지로 하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등이 현장 체험형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역 고유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문화유산 여행은 백제왕도 익산의 매력을 다시 조명하고 있다. 문화와 자연, 생활과 휴식이 어우러진 도시로서 익산은 이제 일상을 즐기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끝까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

정헌율 시장이 이끄는 익산시는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단순한 민원 수렴에서 벗어나 시민이 시정의 동반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했으며, 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시민 참여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들은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등 시정 반영률이 높아지며 시민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의 결과, 익산시는 5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도 설문조사, 토론회, 시민 소통마당, 시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공간의 설계자이자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참여형 공공건축’의 모델을 제시했다.

정헌율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은 지난 10년의 연장이 아니라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첫 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완성한다는 일념으로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역 승강장 KTX



익산역 공영주차타워



마동공원



주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